R-10. 치은 퇴축과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빈도와 분포에 대한 임상 연구

박기영[1], 김성조, 최점일, 이주연[2]
부산대학교병원 치주과([1]발표자, [2]지도교수)

Backgroud

치은 퇴축은 치은 조직이 근단 부위로 이동함에 따라 치근면이 노출된 상태로 대부분의 중장년층 성인에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치은 퇴축은 유년기에 발생하고 이환율과 심도는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치은 퇴축은 치근을 노출시켜 불량한 심미성, 치근 우식에 대한 증가된 민감성, 그리고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원인이 된다. 이중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치은 퇴축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에서의 치은 퇴축과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빈도와 분포양상 그리고 치은 퇴축과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는데 있다.

Material and Method

연구대상은 치주과에 내원한 19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 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대상 치아에서 치은 퇴축과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조사하였다. 치은 퇴축은 각 치아의 협측면(midbuccal)에서 치주탐침자를 사용하여 백악 법랑 경계에서 유리 치은 변연까지의 거리로 측정하였고,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대상 치아의 협측면에 air를 3초간 분사하여 조사하였다.

Result and Conclusion

조사 대상자가 보유한 치아 중에서 54.7%에서 치은 퇴축이 관찰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치은 퇴축량은 1.72±0.89㎜이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의 평균 퇴축량도 증가하였다. 치은 퇴축의 부위별 발생빈도는 상하악 소구치에서 가장 높았으며, 각 치아별 평균 치은 퇴축량은 상하악 제 1 소구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연구대상 성인 중 73.8%에서 관찰되었고,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치아는 상하악 제 1소구치였다. 1-2㎜의 치은 퇴축이 존재하는 치아에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1㎜의 치은 퇴축이 존재할 때 상아질 지각 과민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